

품사 분류 기준 ‘형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학교 문법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

홍 정 현(한국교원대학교 강사)

< 차례 >

- I. 서론
- II. 품사 분류 기준 ‘형태’의 문제점
- III. 품사 분류 기준 정립을 위한 제안
- V. 결론

I. 서론

그간 학교 문법에서는 품사 각론 및 품사 분류를 필수적인 내용 요소로 다루어 왔다. 품사 분류의 결과로 도출되는 품사 체계는 견고한 문법의 틀 속에서 비교적 그 구분의 경계가 확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막상 학습활동이나 평가의 상황에서 판단을 유보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는 ‘품사’와 관련하여 아직 합의되지 않은 다양한 쟁점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학교 문법은 학문 문법과 달리 실용적인 목적에 의해 기술되며, 따라서

다양한 논란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견해의 수렴이나 절충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본고에서는 품사 분류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 중에서 ‘형태’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학교 문법에서 품사 분류의 세 가지 기준으로 꼽는 ‘형태, 기능, 의미’ 중 ‘형태’는 교착어인 우리말의 단어 분류 기준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는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품사 분류의 제1 기준으로 자리 매김하였으며,¹⁾ 여전히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는 품사 분류의 제1 기준으로서 ‘형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국어 품사 분류의 제1 기준으로서 ‘형태’의 설정이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견해와 그에 따른 대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언어와 매체』의 품사 분류 기준의 적용 양상을 통하여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 ‘형태’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3장에서는 학교 문법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형태’를 수용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Ⅱ. 품사 분류 기준 ‘형태’의 문제점

‘형태’라는 품사 분류 기준이 국어에는 유용하지 않다는 점은 선행 연구를 통하여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최웅환 2009, 구본관 2010, 최웅환 2010, 최형용 2012, 김건희 2013, 김건희 2014, 최형용 2015, 오규환 2021, 이지수 2021 등).

여러 논의들에서 제기한 비판의 핵심은 첫째, ‘형태’라는 기준이 굴절

1) ‘제1 기준’이라 함은 첫 번째로 적용되는 기준을 의미한다.

어에는 적용 가능하나 교착어인 국어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굴절어의 경우에는 어근과 접사가 잘 분리되지 않으며, 체언, 동사, 관사 등이 성(性)이나 수(數), 격(格), 시제, 상(相)에 따라 단어 내부에서 형태 변화가 발생하고, 이때 명사나 동사의 어근이 변하기도 한다. 이른바 단어의 굴절(inflexion)이 발생한다.

그러나 우리말은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여 격을 표시할 뿐 체언 내부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용언 역시 어휘적 의미의 중추를 이루는 어간에 문법적 기능을 지닌 어미가 결합하는 교착적 성격을 보이며, 근본적으로 어근과 접사의 형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굴절어와 차이가 크다.

굴절어의 대표적인 예에 해당하는 인구어에서는 일찍이 형태 변화 여부에 따라 품사를 분류하는 전통이 있었다. 이광정(1987:11-27, 2003:13-61, 2008:27-45)에 의하면, 품사의 연원으로 볼 수 있는 소크라테스의 ‘*onoma*(동작을 수행하는 사람의 명칭)와 ‘*rhēma*(동작의 명칭)’는 ‘명사’와 ‘동사’의 개념에 접근한 의미론적 언어 단위에 가깝고, 이후 아리스토텔레스가 ‘*onoma*(명사), *rhēma*(동사), *syndesmoi*(접속사), *arthron*(관사)’의 네 가지 언어 단위를 설정한바, 그 판별 기준은 의미적인 면이 강조되지만 형태·기능적인 면의 고찰이 통사론적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품사론의 원형을 이룩한 저서로 평가받는 트락스(Thrax, B.C. 170-90)의 문법서에서는 형태적 특성을 기준으로 하되 이에 상관된 의미 범주를 설정하였고, 바로(Varro, B.C. 116-27) 역시 형태에 치중한 어형 분석을 시도하여 라틴어 단어 분석을 위한 세 단계를 제시하여, ‘① 언어는 변화사와 불변화사로 나뉘고, ② 변화사는 규칙적인 것과 불규칙적인 것이 있고, ③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은 네 가지 타압으로 나누었다(이광정 1987:11-27, 2003:13-61, 2008:27-45).

이와 같이 인구어의 품사 분류는 굴절어의 특성을 반영하여 형태 변화 자체를 주요 기준 척도로 단어의 분류 체계를 정립하였는데, 이러한 서양의 품사 분류 전통이 국어의 품사 분류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으리

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른 시기 서양인의 한국어 문법 연구에서부터 한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을 인식하여 품사 분류나 문법 설명에 이를 반영하였음을 감안하면,²⁾ 서양의 품사 분류 기준을 국어의 품사 분류에 무비판적으로 일괄 적용한 결과로 국어의 특성에 맞지 않는 ‘형태’라는 품사 분류 기준이 그대로 답습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1) 씨(品詞)의 가름(分類)은 그 말법에서의 구실(役目, 職能) 곧 씨 서로의 關係와 월(文)을 만드는 作用的 關係를 주장(主)으로 삼고, 그에 따르는 形式과 意義를 불함(從)으로 삼아서, 이 네가지가 서로 關係하는 狀態를 標準으로 삼아 決定하여야 한다.

최현배(1930:60)

국어 문법 연구에서 품사 분류 기준이 명백하게 언급되기 시작한 최현배(1930)에서는 ‘구실, 형식, 의의’에 따라 품사를 분류한다고 하였으며, 문법 교과서인 최현배(1934:16)에서도 ‘구실(職能), 꼴(形式), 뜻’에 따라 단어를 몇 갈래로 갈라놓은 것을 품사라고 정의하였다.

여기서 ‘꼴(形式)’은 오늘날 학교 문법의 품사 분류 기준인 ‘형태’와 동일한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역대 문법 교과서의 기술을 통하여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꼴 또는 형식)’의 개념과 범주를 분석한 홍정현(2021)에 의하면,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는 국정 문법 교과서 이전까지는 ‘특정 품사가 문장 내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형태적 특징, 이를테면, ‘어형 변화, 문법 형태소와의 결합 관계, 문장 내 각 품사의 수식 관계, 의존성이나 독립성’ 등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이다가 국정

2) 우형식(2016)에 따르면, Gützlaff(1832)에서 한국어에 곡용과 활용이 없다는 점을 이미 언급하고 있으며, Losny(1864) 역시 한국어 명사의 곡용은 명사의 어근이 변화하는 굴절 현상이 나타나는 프랑스어와 달리 후치사가 붙어 격을 표시하고 명사에는 어떤 변이형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물론 서양의 문법가뿐만 아니라 우리 문법가들 중에서도 용언의 활용뿐만 아니라 체언의 곡용을 인정한 경우도 있으나, 이것이 인구의 굴절과 동질적이지 않으며 차이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할 것이다.

문법 교과서 시기에 들어서면서 ‘어형 변화 유무’만을 판단하는 척도로 정착되는 과도기적 과정을 거쳤는데, 점차 어형 변화에서 ‘체언의 공용’마저 배제함으로써 국정 이후 검인정 문법 교과서에서는 ‘형태’가 ‘어형 변화’, 특히 ‘활용 유무’만을 가르치는 기준으로 고착화되었다고 한다.

즉, 학교 문법의 품사 분류에서 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을 무시하고 ‘형태’ 기준을 적용하여 ‘가변어’와 ‘불변어’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은 ‘형태’가 ‘어형 변화 유무’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굳어진 것과 밀접한 인과 관계를 이룬다.

그렇다고 해서 현행 학교 문법에서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에 과거의 다양한 관점을 넣어 일방적인 회귀를 주장할 수는 없다. 또 다른 개념상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현행 학교 문법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찾을 필요가 있다.

국어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 ‘형태’에 대한 두 번째 비판점은 ‘이다’의 처리이다. 특히 ‘이다’를 서술격 조사로 규정하는 학교 문법에서 품사 분류와 하위 품사 간 범주 불일치가 발생한다. 현행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종의 『언어와 매체』의 구체적인 예를 통하여 품사 분류에서 ‘이다’의 처리 양상을 살펴보자.

이미 언급한바 형태 변화 여부를 품사 분류 기준으로 삼으면, 불변어인 ‘조사’에 속하면서도 활용을 하는 ‘서술격 조사’는 예외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 ㄱ. 불변어와 가변어

불변어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말이고, 가변어는 형태가 변하는 말이다. 조사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에 속하지만,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달리 어미 활용을 하여 가변어에 속한다.

민현식 외(2019:59)

ㄴ. 서술격 조사 ‘이다’

서술격 조사 ‘이다’는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다른 격 조사와 달리 ‘이고, 이니, 이므로’처럼 형태가 변한다.

방민호 외(2019:72)

ㄷ. 서술격 조사 ‘이다’는 다른 조사와 달리 문장 안에서 ‘이고, 이니, 이며’ 등으로 형태가 변한다. 그러므로 가변어에 해당한다.

이관규 외(2019:89)

ㄹ. 서술격 조사는 관계언에 속하지만 다른 조사와는 달리 형태가 변한다는 점에서 가변어에 속한다.

이삼형 외(2019:66)

ㄱ. 조사 가운데 서술격 조사 ‘이다’만 가변어로 인정된다.

최형용 외(2019:64)

(2ㄱ~ㄱ)은 『언어와 매체』에서 ‘형태’ 기준과 관련하여 서술격 조사 ‘이다’에 대하여 설명한 부분을 발췌한 것이다. 5종의 교과서는 공통적으로 <날개>에서 조사가 불변어이지만 서술격 조사는 예외적으로 가변어에 속한다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한 진술은 분류 기준으로서 ‘형태’가 지닌 모순성을 입증할 뿐이다.

다시 말해, ‘형태’라는 기준에 의해 불변어와 가변어, 두 영역의 하위 품사들이 상호 배타적이어야 하는데, ‘조사가 불변어와 가변어에 걸쳐 있기 때문에 역으로 분류 기준인 ‘형태’의 부적절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앞서 진술한바, 서술격 조사가 가변어임은 5종의 『언어와 매체』에서 모두 밝히고 있는데, 품사 분류의 양상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품사 분류표는 조금씩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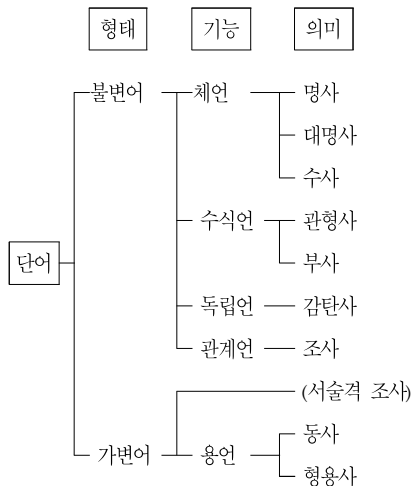
<표 1> 품사 분류 1

단어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관계언	조사
	가변어	용언	동사
			형용사

<표 2> 품사 분류 2

형태	기능	의미
불변어	체언	명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독립언	감탄사
가변어	관계언	조사
		서술격 조사 ·이다
	용언	동사
		형용사

이삼형 외(2019:66)는 가변어에 용언만을 포함시킨 <표 1>을 제시하였고, 최형용 외(2019:64)는 서술격 조사 ‘이다’가 관계언이지만 가변어에 속함을 보여주는 <표 2>를 제시하였다.



[그림 1] 품사 분류 3

반면, 민현식 외(2019:59), 방민호 외(2019:70), 이관규 외(2019:89, 97)는 공통적으로 [그림 1]과 같은 품사 분류 수형도를 제시하였는데, 조사의 일부인 서술격 조사가 가변어임을 명시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표 2>와 동류로 간주할 수 있다.

분류표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서술격 조사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은 <표 1>은 서술격 조사가 가변어임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불완전하고, 조사 중에서 서술격 조사만을 가변어로 연결하여 예외로 처리한 <표 2>는 ‘형태’가 분류의 기준으로서 정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명백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서술격 조사를 예외로 처리하는 방식은 일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이다’의 가변어 귀속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형태’ 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회의적 물음을 갖게 한다.

여기서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 ‘형태’가 지닌 세 번째 문제를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형태’라는 기준의 잉여성이다.

결국 『언어와 매체』에서의 품사 분류 기준은 <표 1>, <표 2>, [그림 1]과 같이 ‘형태 → 기능 → 의미’로 순차 적용됨에 따라, ‘형태’ 기준을 적용하여 ‘가변어’와 ‘불변어’로 이분하는 것으로부터 품사 분류가 시작되고, 이를 다시 ‘기능’에 의해 ‘체언, 수식언, 관계언, 독립언, 용언’으로, ‘의미’에 의해 9개의 품사로 분류하게 된다.

‘형태’에 의해 가변어인 용언과 불변어인 다른 품사들을 이분해 주는 것, 즉 사실상 ‘형태’ 기준이 활용 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한정된 이상, ‘형태’는 다른 품사들로부터 용언을 분리해 내는 것에만 소용되는데, 용언을 다른 품사들과 구별해 주는 역할은 굳이 ‘형태’가 아니더라도 ‘기능’에 의해서 분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국어의 교착어적 특성에 맞지 않는다면 굳이 ‘형태’라는 품사 분류 기준을 무리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으므로 잉여적이라는 의미이다.

또한 ‘관계언(조사)’의 경우 1차적으로 불변어로 분류되었으나 결국 그 일부인 ‘서술격 조사’를 가변어로 처리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도 ‘형태’라는 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최형용(2015)의 지적과 같이, ‘기준’이라 함은 상위, 하위 할 것 없이 서로 배타적인 분류가 가능해야 논리적으로 정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형태’로 양분된 ‘가변어, 불변어’라는 체계는 서술적 조사의 형태 변화에 의해 그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가 지닌 비정합성과 잉여성을 해소하고 품사 분류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탐색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에 3장에서 현행 학교 문법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품사 분류 기준 정립을 위한 제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형태’는 교착어인 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품사 체계의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도 적절하지 않다.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인하여 선행 연구들은 몇 가지 대안을 도출하였다. 본고에서는 학교 문법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판단 근거로 선행 연구들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긴 시간에 걸쳐 정착된 학교 문법의 틀을 최대한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형태’가 지닌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다.

우선, 선행 연구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하여 ‘형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도록 하겠다. 국어의 품사 분류에 ‘형태’ 기준을 적용하는 부적절성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으로서 비교적 최신의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방안은 다음의 두 가지 정도로 압축할 수 있다.³⁾

3) 사실상 (3)~(4)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어서 완전히 분절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편의상 나누어 살펴본다.

- (3) ㄱ. 품사 분류 기준에 ‘형태’ 대신 ‘분포’의 개념을 도입한다
 ㄴ. ‘이다’를 ‘조사’가 아닌 ‘용언’으로 처리한다.

(3 ㄱ)의 ‘분포’는 일반적으로 문장 내에서 품사들의 상대적 위치나 결합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예를 들면, 조사는 체언 뒤, 관형사는 체언 앞, 부사는 용언 앞에 위치한다는 진술들은 ‘분포’의 관점에서 품사를 설명하는 예에 해당하며, 이러한 ‘분포’를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3 ㄱ)의 관점을 대표하는 연구로 최형용(2012)를 들 수 있다.⁴⁾ 최형용(2012)에서는, 앞서 (1)에 제시한 최현배(1930)의 “씨(品詞)의 가름(分類)은 그 말법에서의 구실(役目, 職能) 곧 씨 서로의 關係와 월(文)을 만드는 作用의 關係를 주장(主)으로 삼고”에서 ‘씨 서로의 관계’가 ‘분포’에 상응하며, 따라서 최현배(1930)에서 분포는 기능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고, 임흥빈·장소원(1995:11)과 구분관(2010)에서는 ‘형태’를 조사 결합 여부와 어미 결합 여부로 보았으므로 ‘분포’와 ‘형태’가 혼동되어 있다고 설명하면서 ‘분포’를 ‘기능’이나 ‘형태’와 명확하게 분리하여 볼 필요가 있으며, 언어 유형론적 관점에서 한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으로 부적합한 ‘형태’가 아닌 ‘분포’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다.⁵⁾

4) 최형용(2012)에서는 ‘형태’가 아닌 ‘형식’이라고 하였으나 기술의 일관성을 위하여 ‘형태’로 적는다.

5) 홍정현(2021)에 의하면, 역대 문법 교과서에서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는, 단순히 단어의 어형 변화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쓰인 경우와 어형 변화를 포함한 문장 내 단어의 형태적 특징들을 두루 포괄하는 개념으로 쓰인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어형 변화 유무를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쓰인 경우도 국용과 활용을 모두 어형 변화로 판단하는 경우와 활용만 어형 변화로 판단하는 경우로 세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형태’를 특정 품사의 다양한 형태적 특징으로 본 경우에는 ‘어형 변화, 문법 형태소(조사, 어미 등)와의 결합 관계, 문장 내 각 품사의 수식 관계, 의존성, 독립성’ 등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으로 쓰였음을 밝히고, 그 예로 김민수 외(1960 ㄱ:58), 김민수 외(1960 ㄴ:43, 121-122), 김형규(1967:91), 강원호(1968:37-38), 이명관·이길록(1968:101-103), 김민수(1979:14-15)를 들고 있는데, 이를 최형용(2012)에서 언급한 ‘분포’의 개념에 적용시킨다면 이들 교과서에서는 ‘분포’를 ‘형태’에 포함하여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최형용(2015)는 조사와 어미에 모두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면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형태’ 기준의 폐지가 가능하다고 하였다. 이때 어미에 단어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결국 ‘분포’라는 기준에 의해 용언의 어간과 어미가 분리되기 때문이다. 즉, 용언의 어간 뒤에 어미가 결합하는 분포 관계를 통해 어간과 어미에 각각 단어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비자립적인 어간과 어미를 각각 단어로 인정하는 것은 단어를 통사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기 때문이다. 통사적 차원에서 단어는 통사 구성에 참여하는 모든 단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사와 어미도 단어이다(구본관 외, 2015:108).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학교 문법의 단어 개념과 일치하지 않는다. 학교 문법에서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자립성’을 기준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4) 『언어와 매체』에 제시된 ‘단어’의 정의

- ㄱ.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나 그 말의 뒤에 붙어서 문법적 기능을 나타 내는 말을 단위로 나눈 것으로, 이 단위를 단어라고 한다.

방민호 외(2019:76)

- ㄴ. 자립할 수 있는 말 또는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들을 단어라고 한다.

이관규 외(2019:103)

- ㄷ. 어절을 자립하여 쓰일 수 있는 부분과 조사로 분석하였을 때, 분석된 각각을 단어(單語)라고 한다.

이삼형 외(2019:81)

물론 학교 문법에서 의존성을 가진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고는 있지만,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게 된 이유 역시 자립성과

분리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즉, 조사가 결합하는 체언이 자립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간과 어미와 달리, 체언과 조사의 분리성이 크기 때문에 체언을 단어로 분석해 내기 쉽다는 점에서 조사에 단어의 지위를 부여한 것이다.

단어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동사와 형용사를 어간과 어미의 결합체로 보는 국어 화자의 인식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사적 단어’ 개념을 도입하여 어간과 어미를 모두 단어로 인정한다면, 학교 문법에서 단어의 개념을 정의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단어에 대한 국어 화자들의 일반적인 인식과도 거리가 멀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 외에도 이지수(2021)에서는 학교 문법에서 ‘분포’ 기준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기존의 ‘기능’이라는 품사 분류 기준과의 중복과 더불어 교육 내용의 난이도 문제, 복잡성 문제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지수(2021)은 ‘형태’가 지닌 교육적 유용성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한다. 그리고 ‘형태’ 기준을 고수하는 입장을 취하되, 서술격 조사 ‘이다’의 문제는 품사 분류 기준이 형태냐 분포냐와 별개로 조사가 활용한다는 특수성을 해소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이다’를 조사가 아닌 용언의 하나로 보는 견해에 대한 지지를 드러낸다.

이처럼 ‘이다’를 조사가 아닌 용언으로 분류하는 견해는 (3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다’ 앞에 오는 요소는 보어로 처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 때문에 ‘이다’를 형용사 중에서도 의존 형용사로 분류한다.⁶⁾

유현경 외(2018:267-269)에서는 ‘이다’와 관련하여 서술격 조사설이나 주격 조사설, 통사적 접사설을 지지하는 근거가 존재하나, ‘이다’가 활용을 한다는 특성이 다른 특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

6) ‘이다’를 용언으로 보는 견해로, 엄정호(1989/1993), 양정석(1996), 김의수(2002), 유혜령(2002), 박정규(2017) 등을 들 수 있으며, 표준 문법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제의 결과물인 유현경 외(2018:267~270, 419~425)에서도 ‘이다’를 의존 형용사로, ‘이다’의 선행요소를 ‘보어’로 처리하였다.

여 ‘이다’를 의존 형용사로 상정하고, ‘이다’의 선행 요소를 보어로 보았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다’의 주어인 NP1과 보어인 NP2의 관계로 볼 때 보어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 이는, NP2가 ‘이다’가 주어 이외에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성분이면서, NP1과 NP2가 등가 관계나 속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보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유현경 외, 2018:420-423).

- (5) ㄱ. 난 잡곡밥이 좋아요.
 ㄴ. 나는 어깨가 결린다.
 ㄷ. 그 사람이 범인이 맞아.
 ㄹ. 철수는 대학생이다.

- (5') ㄱ. 난 잡곡밥~~이~~ 좋아요.
 ㄴ. 나는 어깨~~가~~ 결린다.
 ㄷ. 그 사람이 범인~~이~~ 맞아.

유현경 외(2018:420) 재인용

이에 따르면, (5ㄹ)에서 ‘이다’는 의존 형용사, ‘대학생’은 보어가 된다. 그러나 (5ㄱ~ㄷ)과 달리, ‘이다’의 경우에는 보어임에도 불구하고 보격 조사가 뒤따르는 예를 찾을 수 없다는 점은 문제가 된다.⁷⁾ 물론, (5'ㄱ~ㄷ)과 같이 격조사의 생략은 가능하지만, 격조사가 필수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경우에 따라 생략이 가능한 것과는 차이가 크다.

(5')의 예를 통하여, 정보의 잉여성에 의한 보격 조사와 보어의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이다’에서는 정보의 잉여와 상관없이 필수적으로 생략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⁸⁾

7) 학교 문법에서는 보어를 요구하는 용언으로 ‘되다, 아니다’만을 설정하고 있으나 유현경 외(2018:419-425)에서는 ‘이다, 아니다, 되다, 맞다’를 포함하여, 심리 형용사, 심리 자동사, 감각 형용사, 감각 자동사 등으로 확장하여 설정하고 있다.

부정 표현인 ‘철수는 대학생이 아니다’와 비교를 해 보더라도 보격 조사의 필수적인 생략을 설명하기 어렵고, 만약 보어를 취하는 ‘이다’가 의존 형용사라면 ‘아니다’ 역시 의존 형용사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시 항상 보어를 취하는 ‘되다’는 의존 동사가 되어야 하겠지만, ‘이다’와 ‘되다, 아니다’는 조사 결합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들을 같은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다’의 ‘의존성’을 선행어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결국 ‘의존 형용사’라는 분류는 타당성을 얻기가 힘들다.

다시 말해서, ‘이다’의 선행어를 보어로 볼 수 있다는 이유로 ‘이다’를 의존 형용사로 분류할 수 없고, 격조사가 필수적으로 생략되는 것을 문법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이다’의 선행어를 보어로 볼 수도 없다.

‘이다’의 선행어에 조사가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조사가 생략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조사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이다’는 주어 이외의 논항을 취하는 형용사라고 볼 수 없다. 즉, ‘이다’를 형용사로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결국 ‘이다’의 범주 설정 문제는, 유현경 외(2018:267-269)에서 ‘이다’의 활용을 다른 특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파악하였다고 밝힌 바와 같이, 해석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즉, ‘이다’를 의존 형용사로 처리해야 할 당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

이처럼 품사 분류 기준으로 ‘분포’를 도입하기도 어렵고 ‘이다’를 의존 형용사로 인정하기 어렵다면, 현행 학교 문법의 기존 틀을 최대한 유지하는 상태로 마련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

여기서 현행 학교 문법의 틀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것은 조사와 어미 중에 ‘조사’만을 단어로 인정하는 것, ‘이다’를 의존 형용사나 접사, 지정사 등이 아닌 ‘서술격 조사’로 규정한 기존의 학교 문법의 관점을 수용한

8) 이와 관련하여, 유현경 외(2018:267-269)에서는 보격 조사 ‘이/가’가 결합될 수는 없지만, 이는 조사 ‘이/가’와 ‘이다’의 통시적인 관계로 설명할 수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하였는데, 언급한 통시적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다는 의미이며, ‘형태’ 기준의 처리와 적용에 대해서는 역대 문법 교과서의 기술을 토대로 현행 학교 문법의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적절한 해석을 하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이 제한적인 관점을 취하는 이유는, 그동안 ‘형태’ 기준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학문적 논의들은 학교 문법에 위배되는 점이 많아, 학교 문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다’를 의존형용사로 봐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굳이 학교 문법 기술에서 ‘이다’를 서술격 조사가 아닌 의존형용사로 처리함으로써 감당해야 할 부담이 훨씬 크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학교 문법이 학문 문법에서의 논의들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단어의 개념을 ‘음운론적 단어, 형태론적 단어, 통사론적 단어, 화용론적 단어’ 등으로 다변화하여 설명한다든지, 체언에 붙어 체언에 서술성을 더하는 ‘이다’를 형용사로 처리하는 등의 과감한 수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처리 방식이 가져오는 또 다른 문제들, 즉 단어, 형용사, 보어의 개념과 범위 수정 등 광범위한 개선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문법이 감당해야 할 부담의 몫을 줄일 수 있는 범위에서 논의를 이끄는 것이 실현 가능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조사와 어미에 대한 학교 문법의 해석을 유지한 상태에서도 ‘형태’ 기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수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이와 같은 제안의 핵심은 ‘형태’라는 상위 기준을 없애고 ‘기능’과 ‘의미’만으로 품사를 분류하자는 것이다.

이지수(2021)에서는 ‘이다’의 문제는 품사 분류 기준과 상관없이 ‘이다’의 어간을 서술격 조사라고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조사가 활용을 한다’라는 서술격 조사의 개념 설정 이상의 것이 아니라면서 ‘서술격 조사를 설정해 두는 한 해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형태’는 단지 용언을 다른 품사들로부터 분리시키는 역할을 할 뿐, 단어 인정 여부에 따른 조사와 어미의 변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사와 어미를 따로 떼어 ‘형태 변화 유무’의

측면에서 판단한다면 둘 다 불변어에 해당한다.

또한 ‘이다’의 문제는 활용하는 조사가 있다는 개념이 존재하는 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고 하였으나, 이는 이미 인식 속에 조사를 불변어로 확정해 놓았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이다. 즉, ‘형태’에 의해 조사가 불변어로 분류되는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사’를 불변어로 분류하지 않는다면 특정한 조사가 활용을 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설명이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이에 학교 문법 차원에서 품사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형태’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품사 분류 기준의 적용 순서를 재검토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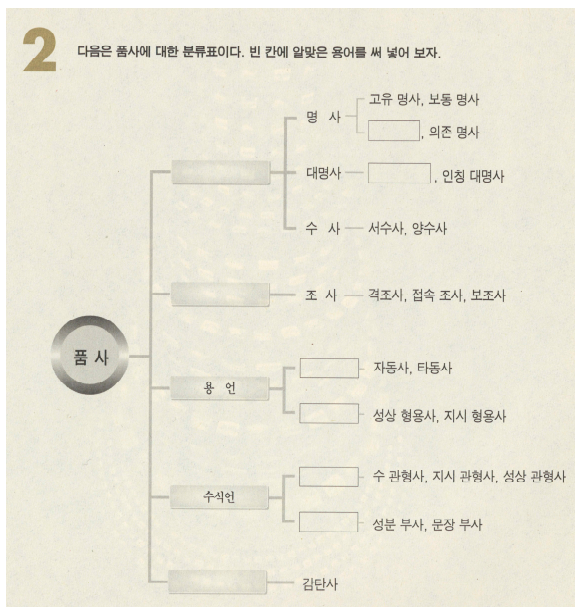
이는 역대 학교 문법 교과서의 기술을 통해서 도출 가능한 수준의 것으로, 완전히 새롭거나 생경한 개념의 도입이 아닐 뿐만 아니라, 품사 분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 시작한 것이 국정 이후 김인정 문법 교과서에서부터 고착화되었을 뿐이라는 점에서도 충분히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 (6) 단어들을 성질이 공통된 것끼리 모아 갈래를 지어 놓은 것을 품사(品詞)라고 한다. 국어의 품사는 문장 속에서 단어가 담당하는 기능, 문장 속의 일정한 자리에서 단어가 보이는 형태, 그리고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하여 나눈다. 국어에는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의 아홉 개 품사가 있다.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90)

7차 문법 교과서는 (6)과 같이 ‘기능, 형태, 의미’를 품사 분류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나, 그 적용 순서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며, 체언에 대하여 ‘형태의 변화가 없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90)’, 용언에 대하여 ‘문장 속에서 담당하고 있는 기능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진다(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101)’는 언급이 있을 뿐, 전체 품사를

‘가변어’나 ‘불변어’로 구분 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품사 분류 기준의 적용 순서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2] 2단원 품사, ‘단원의 마무리’의 품사 분류표(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2002:111)

[그림 2]는 7차 문법 교과서에서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과 그 하위분류만을 제시할 뿐 ‘형태’를 제1 기준으로 하는 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즉, 7차 문법 교과서에서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 ‘기능, 형태, 의미’를 명시한 것은 맞지만, ‘용언’을 ‘체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과 구분하기 위해 ‘형태’라는 기준을 잉여적으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앞서 언급한바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 ‘형태’가 명확하게 ‘활용 유무’의 의미로만 굳어진 것도, ‘형태’가 품사 분류의 첫 번째 기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도, 국정 문법 교과서 이후에 발행된 검

인정 문법 교과서들의 기술에서 나타난 현상이다(홍정현 2021).⁹⁾ 이로 인하여 1단계 품사 분류의 결과는 ‘가변어’, ‘불변어’로 양분되는데, 공교롭게도 국어의 품사 분류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은 이러한 1단계 품사 분류 결과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국정 이전 김인정 문법 교과서를 비롯하여 국정 문법 교과서의 내용 기술을 보았을 때, 굳이 ‘형태’의 개념을 ‘활용 유무’로 제한하고, 품사 분류의 첫 번째 기준으로 고정시킬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찍이 최현배(1957:99-104, 1967:41-49)에서 그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¹⁰⁾

(7) 낱말을 어떠한 표준을 가지고 가를 것인가? 먼저 문장(월)을 이루는 구실로써 갈라보자.

체언(임자씨), 용언(폴이씨), 수식사(꾸밈씨), 관계사(걸림씨)

이 네 갈래의 낱말들을, 그 뜻으로 보아(그 꼴도 참조하면서), 다시 가늘게 갈라 보자.

체언(임자씨): 명사(이름씨), 대명사(대이름씨), 수사(셈씨)

용언(폴이씨): 동사(움직씨), 형용사(그림씨), 잡음씨

수식사(꾸밈씨): 관형사(매김씨), 부사(어찌씨), 감탄사(느낌씨)

관계사(걸림씨): 조사(토씨)

최현배(1967:41-49)

(7)은 ‘기능’을 제1 기준으로 하여 품사를 분류한 것인데, 기능으로 분류된 체언, 용언, 수식사, 관계사를 “그 뜻으로 보아(그 꼴도 참조하면서)” 세부 분류한다는 언급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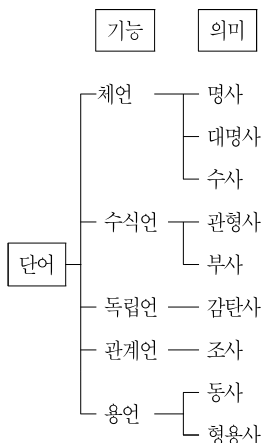
9) 홍정현(2021)은 문법 교과서의 김인정 전환 시기에 발행되었던 교육과정 해설서에 ‘학교 문법의 품사 분류 체계’라고 명시된 품사 분류표가 제시되었는데, 이것이 김인정 교과서 집필에 영향을 줌에 따라 품사 분류 체계가 고착화된 것으로 분석하였다.

10) 대표적으로 최현배(1957:99-104, 1967:41-49)을 들었을 뿐, 국정 이전 김인정 문법 교과서에 제시된 다양한 품사 분류 방식 중에서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한 경우가 종종 있으며, 근래에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한 논의에서도 ‘기능’이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함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즉, 품사 분류에 있어서 기능이 주요한 기준이 되고, 2차적으로 의미로 나누되 형태는 ‘참조’하는 정도의 부차적인 수준으로 보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품사 분류의 ‘형태’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 용언의 형태 변화는 ‘기능’에 따라 분류한 이후, 용언이 가지는 부차적인 특성일 뿐 용언을 분리해 내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그리고 이때의 형태는 ‘단어의 형태 변화’가 아니라, 어간 뒤에 여러 어미가 교체함으로써 문장 안에서 다양한 문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적 특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본다면 결국 ‘형태’를 품사를 분류하는 제1 기준으로 삼았던 기준의 틀을 수정하지 않을 수 없다. ‘형태’를 품사 분류 기준에서 제외하고, 품사 분류의 제1 기준으로 ‘기능’을 적용하는 것으로, 분류 결과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수정한 품사 분류

[그림 3]에서 ‘기능’에 의해 분류된 용언은 어간 뒤에 여러 어미가 교체하여 결합한다는 특성을 갖는데, 이러한 특성을 ‘품사 분류 기준’이 아닌

‘용언의 형태적인 특성’으로 기술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 방식에서는 서술격 조사가 어미 활용을 하는 것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새로운 틀에서 ‘형태’는 더 이상 품사 분류 기준이 아니므로, 조사의 가변어, 불변어 논쟁은 성립 자체가 불가하며, 단지 조사의 하위 유형 중의 하나인 서술격 조사가 용언과 동일한 형태론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기술하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 방향과 편찬상의 유의점을 제시한,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에서는 『언어와 매체』의 내용 선정 시, “관련 학계에서 통설로 인정하는 최신의 것으로서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선정하되, 제7차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와 배치되지 않도록 한다.(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6:136)”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정 이후 검인정 문법 교과서의 기술에서 7차 문법 교과서의 내용이 하나의 준거로서 작용함을 의미한다.

앞서 살펴본바 4~7차 문법 교과서를 비롯하여 국정 이전 검인정 교과서에서 ‘형태’, 특히 ‘활용 유무’를 첫 번째 기준으로 적용한 1단계 분류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점은, 굳이 ‘가변어’와 ‘불변어’의 분류를 고수할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며, 따라서 품사 분류 기준에서 ‘형태’를 배제하고,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의 ‘형태적 특성’으로 ‘활용’을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함을 알려준다.

IV. 결론

지금까지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그간 품사 분류에서 ‘형태’ 기준은 교착어라는 우리말의 본질적인 특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학교 문법의 측면

에서는 ‘형태’ 기준에 의해 서술격 조사가 ‘예외’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형태’ 기준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 하되, 오랜 기간 형성된 학교 문법의 틀, 즉 단어의 개념이나 범위, 품사 체계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는 교착어라는 국어의 본질적 특성이나 ‘기준’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준에 ‘형태’를 품사 분류의 제1 기준으로 보았던 관점을 수정한다.

그간 여타의 논의에서 여러 차례 주장된 바와 같이, 품사 분류의 제1 기준은 ‘기능’으로 보아 품사를 1차적으로 분류하고, ‘용언’과 ‘서술격 조사’의 형태적 특징으로 ‘활용’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기술함이 합당함을 주장하였다.

이 경우, 품사 체계에서 ‘가변어’와 ‘불변어’라는 분류 자체가 사라지고, ‘형태’는 품사 분류의 기준으로서의 자격이 아닌 형태적인 특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뿐만 아니라 서술격 조사 ‘이다’에 대하여 ‘활용’하는 형태적 특징을 가졌다는 진술을 하더라도 품사 체계상 모순이나 예외를 설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조사의 단어 자격을 박탈한다거나 어미를 단어로 인정하는 방법, ‘이다’를 의존 형용사로 설정하여 보어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등, 학교 문법의 기존 전제들을 과감하게 수정해야 하는 제안들에 비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이 논문은 2021년 12월 31일에 접수하여 2022년 1월 19일에 논문 심사를 완료하고 2022년 1월 20일에 게재를 확정함.

참고문헌

-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2016),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도서 개발을 위한 편찬상의 유의점 및 검정기준.
- 구본관(2010), 국어 품사 분류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형태론』 12, 도서출판 박이정, pp.179-199.
-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 『한국어 문법 총론 I -개관, 음운, 형태, 통사-』, 집문당.
- 김건희(2013), 품사의 분류 기준과 분류 체계 -언어유형론적 고찰을 중심으로-, 『한글』 300, pp.75-118.
- 김건희(2014), 단어, 품사, 문장성분의 분류에 대한 일고찰 -상호 연관성과 변별성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71-1, pp.279-316.
- 김의수(2002), ‘이다’ 재론, 『형태론』 4-2, pp.349-356.
- 박정규(2017), 학교 문법에서의 ‘이다’ 처리 문제 재고, 『우리말연구』 50, pp.107-139.
- 양정식(1996), ‘이다’ 구문과 재구조화, 『한글』 232, pp.99-122.
- 엄정호(1989), 소위 指定詞 構文의 統辭構造, 『국어학』 18, pp.110-130.
- (1993), ‘이다’의 범주 규정, 『국어국문학』 110, pp.317-332.
- 오규환(2021), 기술 문법의 관점에서 살펴본 학교 문법의 형태론 -‘언어와 매체’ 교과서를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57, pp.15-44.
- 우형식(2016), 19세기 서양인의 한국어 문법 연구, 『우리말연구』 45, pp.5-40.
- 유현경·한재영·김홍범·이정택·김성규·강현화·구본관·이병규·황화상·이진호(2018), 『한국어 표준 문법』, 집문당.
- 유헤령(2002), 학교문법에서의 ‘이다’ 처리 재고, 『청람어문교육』 24, pp.131-158.
- 이광정(1987), 『국어품사분류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연구』, 한신문화사.
- 이광정(2003), 『국어문법연구 I 품사』, 도서출판 역락.
- 이광정(2008), 『국어문법연구 III 한국어 품사 연구』, 도서출판 역락.
- 이지수(2021), 품사 분류 기준으로서의 ‘형태’에 대한 국어교육적 고찰, 『언어사실과 관점』 52, pp.307-325.
- 임흥빈·장소원(1995), 『國語文法論 · I』, 한국방송대학교출판부.
- 최웅환(2009), 품사 분류에 대한 검토-학교 문법의 품사를 대상으로-, 『문학과 언어』 31, pp.55-78.
- 최웅환(2010), 국어 품사론 연구의 전개와 전망, 『한국어학』 47, pp.33-60.
- 최현배(1930), 朝鮮語의 品詞分類論, 『朝鮮語文研究 延禧專門學校 文科研究集』 第一輯, 京城延禧專門學校出版部, pp.51-99.

- 최형용(2012),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의 품사 분류 기준에 대하여, 『형태론』 14-2, pp.233-263.
- 최형용(2015), 학교 문법 교과서의 품사 분류에 대한 비판적 고찰, 『언어와 정보사회』 26, pp.507-548.
- 홍정현(2021), 품사 분류 기준 ‘형태’의 정착 과정에 대한 연구, 『돈암어문학』 39, pp.171-210.

<자료>

- 최현배(1934), 『중등조선말본』, 동광당서점.
- 최현배(1957), 『중등 말본』, 정음사.
-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1960ㄱ), 『새 중학 문법』, 동아출판사.
- 김민수·남광우·유창돈·허웅(1960ㄴ), 『새 고교 문법』, 동아출판사.
- 김형규(1967), 『중등문법』, 고려서적주식회사.
- 최현배(1967), 『새로운 중학말본』, 정음사.
- 강윤희(1968), 『정수 문법』, 지림출판사.
- 이명권·이길록(1968), 『문법』, 삼화출판사.
- 김민수(1979), 『문법』, 어문각.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2002), 『고등학교 문법』, 두산동아.
- 민현식·신명선·오현아·이지은·안장호·조진수·박진희(2019), 『언어와 매체』, 천재교육.
- 방민호·안효경·신서인·오현숙·이용광·김태경(2019), 『언어와 매체』, 미래엔.
- 이관규·박경희·신호철·신희성·이동식·정지현·하성욱(2019), 『언어와 매체』, 비상.
- 이삼형·김창원·양정호·안혁·하동원·박찬용(2019), 『언어와 매체』, 지학사.
- 최형용·강영준·권태윤·박재연·박종오·소신애·송찬욱·오세호·임요한(2019), 『언어와 매체』, 창비.

<국문초록>

품사 분류 기준 ‘형태’에 대한 비판적 고찰

— 학교 문법에서의 적용을 중심으로 —

홍 정 현

학교 문법에서는 ‘형태, 기능, 의미’를 품사 분류 기준으로 제시한다. 이 중 ‘형태’는 교착어인 국어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형태’를 제1 기준으로 적용하면 불변어인 ‘조사’에 속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가변어로 처리해야 하는 ‘서술격 조사’로 인하여 품사 분류 체계의 정합성이 떨어진다. 또한 ‘형태’는 용언과 다른 품사와의 구분에만 관여하는데, ‘기능’을 적용한 분류가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용언’의 분리를 위한 ‘형태’ 기준은 잉여적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오랜 기간 형성된 학교 문법의 틀, 즉 단어의 개념이나 범위, 서술격 조사 ‘이다’의 품사 설정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형태’ 기준의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것은 ‘형태’를 품사 분류의 기준에서 배제함으로써 품사 체계에서 ‘가변어’와 ‘불변어’라는 분류 자체를 없애고, 품사 분류의 제1 기준으로 ‘기능’, 제2 기준으로 ‘의미’를 적용하여 품사를 분류하되, ‘용언’과 ‘서술격 조사’는 ‘활용’을 하는 형태적 특징을 지니는 품사로 기술하는 것이다.

- **핵심어** : 학교 문법, 품사 분류 기준, ‘형태’, 용언, 서술격 조사 ‘이다’, 품사의 형태적 특징

<ABSTRACT>

A Critical Study on 'Form',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Part-of-Speech

-focused on Applicable Methods in School Grammar-

Hong, Jeong-Hyun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parts-of-speech are the 'form, function, meaning'. Among these, 'form' is not suitable for Korean, which is an agglutinative language. In particular, if 'form' is applied first and classified, 'Predicative Case Marker, "Ida"' is an 'inflected word' while belonging to 'Particles', which is an 'uninflected word'. Therefore, the system of part-of-speech is contradictory.

In addition, 'form' only serves to separate the 'Predicates' from the other parts-of-speech. However, even if 'function' is applied and classified, 'Substantives, Predicates, Connective words, Modifiers, Dependent words' are derived. Therefore, 'form' is surplus.

This paper presents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problem of 'form' without compromising the framework of school grammar that has been formed over the years, namely the concept and scope of word, and the setting of part-of-speech.

The alternative removes 'the inflected word' and 'the uninflected word' from the system of part-of-speech by excluding 'form' from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part-of-speech.

As in traditional grammar, words are classified by 'function' and 'meaning' to build the system of part-of-speech. And 'conjugation' is described as a morphological features of 'Predicates' and 'Predicative Case Marker, "Ida"'.

- **Key words** : School Grammar, The Criteria for the Classification of Part-of-Speech in Korean, 'Form', Predicates, Predicative Case Marker 'Ida', Morphological Features.